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 02-961-0341~2 E. khsc0800@khu.ac.kr



KYUNG HEE DENTAL SCHOOL NEWS LETTER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GREETINGS

- 03 발간사
- 04 축사/격려사

PLANNING NEWS

- 05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즈음하여...

NEWS

- 07 학교소식
- 10 교실소식
- 12 동문소식
- 14 학생 / 동아리

SPECIAL NEWS

- 15 문화탐방
- 16 해외탐방
- 18 교신탐방

INTERVIEW

- 20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인터뷰
- 22 발전기금

2011 : 창간호

TOWARDS GLOBAL EMINENCE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 의사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슬기를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HELPERS 2011. 9. 1 창간호
발행인 | 박준봉 발행처 | 치의학전문대학원 편집장 | 전양현 편집위원 | 최용석 김형찬 이상천 배아란 최성철 이덕원 최병준
김선영 박기호 강경리 백성선 김광순 디자인 제작 | 청솔디자인

이 잡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허락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간사



베푸는 삶을 위하여 우리 치과대학은 사학으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학교당국은 물론 은사님과 동문들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의 노력과 사랑으로 지금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산통과정을 거친 학제에 대한 지난 해의 결정은 구성원 전체의 글로벌을 향한 미래지향적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변화와 도약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HELPERS' 라는 Initial을 교육의 Core Value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개성과 조화를 추구하며 인류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 함양은 물론 미래사회를 여는 진취적 기상과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겸비한 우수한 의료인들의 한마당을 펼칩니다. 마침 금년부터 시작한 대학교 전체의 새로운 신교육개념인 Humanitas College의

의미를 부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소식지는 그 기대를 담기위해 제작되며 우리 대학과 관련한 모든 이들의 아름다운 소식이 내왕되고 읽는 사람마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소통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HELPERS' 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문화홍보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 준 봉

축사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경희대학교는 62년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는 대학으로 “학문과 평화”의 핵심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원,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학교 소식과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운영체제에 맞게 치의학전문대학원 스스로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이 참여하여 정성을 담아 만든 소식지를 동문들 가정에 배달될 때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경희의 창학이념과 역사를 소개받은 바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소식지 창간을 기회로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치과대학 학제개편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참여와 공감으로 함께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변화하는 경희대학교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식지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지 창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부총장

김 정 만

축사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를 기초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여 이를 실천하는 국내의 선도대학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설립된 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치의학계에서 명문 사학으로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의 여러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교수, 학생, 동문들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탕에는 교수를 존경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며, 동문들 간에는 진정으로 서로를 배려해 주는, 따뜻한 인간애가 깊이 깔려 있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치과대학의 발전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간될 소식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모든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솔한 마음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치의학을 선도할 후마니타스 덴탈 칼리지로 다시 한 번 우뚝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소식지의 발간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의무부총장

유명철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자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 회장이 된 10회 나궁균입니다.

동창회는 1회 선배님들로부터 10회까지 내려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두 번씩이나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서울대 출신 이외 다른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대한치과의사 협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 동문회는 회원의 단합과 결속력이 동문회중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모교의 든든한 뒷받침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문의 연구는 나날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그 성과가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것을 저희 동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문, 후배, 학생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내 선후배 동문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HELPERS' 라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선후배 동문에게 교내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과 후배 동문의 양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식지의 발간으로 동문 선후배와 모교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경희대학교, 우리 모두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 나궁균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즈음하여...

치의학교육실 객원교수 방재범



치의학교육실 객원교수
방재범

국내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보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KIDE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은 2008년 재단 설립 인가 이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통하여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2009년 여러 차례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와 평가 인력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0년부터 제1주기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우리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올해 200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현지 방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크게 5가지 영역, 즉 제1영역 기관의 효율성, 제2영역 교육 과정, 제3영역 학생, 제4영역 교수, 제5영역 시설 및 자원 등에 대해서 각 영역별 세부 기준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와 현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영역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영역 기관의 효율성에서는 대학본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후 치전원) 그리고 치과병원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체계, 치전원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 정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2영역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까지의 학문 분야별 교육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기초, 임상, 인문사회 분야가 통합 및 연계된 교육 시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순한 강의 중심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등의 교육방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학생들의 강의 및 실습 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강조한다. 제3영역 학생의 경우 입학 정책과 전문적 관리, 체계적인 학생 지도 및 복지 지원, 진로 지도 및 취업률, 국가시험 및 졸업생 관리와 지원, 일정 규모 및 다양한 장학제도 적용과 기숙사 제공 등을 주요 내용 등을 평가한다. 제4영역 교수의 경우 기초 및 임상 분야 적정수의 교수 확보와 공정한 선발 기준과 방법,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 실적 및 부설 연구소의 학술활동, 그리고 교수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지원 적정 인력 현황 및 교수업적 평가 기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제5영역 시설 및 자원의 경우 기초 및 임상 교육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설비 현황, 이에 대한 관리와 투자,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실험 실습비 지원 등을 평가한다.

이번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전체 교수가 평가 준비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논의 하는 과정을 통해서 2015년부터 시작되는 치과대학으로의 학제 전환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자연과학

우리 대학은 전체 교수가 평가 준비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 중심 운영의 치의예과 2년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4년 과정에서 치과대학 단독 6년 운영 체제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과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치의학관 공간 재조정, 그리고 치과병원 종합진료실 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운영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발전 계획으로 학생 기숙사와 전용 도서관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 및 전반적 운영에 대한 보다 전문적 체제 마련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경희대-UCLA MOU 체결



우리 대학교와 UCLA 치대 (학장 No-Hee Park)가 2010년 8월 25일 MOU를 체결하여 향후 상호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박준봉 치전원장과 대외협력실장 최경규교수와 Loma Linda에서 연구년중인 이진용교수가 배석하였다.

● 경희치대 남가주동문회 모임



수년 만에 남가주 인근의 경희치대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우성(10회)회장의 노력과 최상돈(1회), 정주성(7회)동문의 주선으로 많이 모였고 강구수(12회)동문은 봉사자로의 파견발표도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이진용교수와 UC Sandiego에서 연구년중인 치과약리학 교실의 이현우교수가 동참하였다.

● 신입교수 채용 : 김선영 교수



2010년 9월 1일자로 치과보존학교실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선영교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2001년에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2009년 치의학박사를 받았다.

● 인도네시아 치과대학교수 내방



2010년 9월 1일 인도네시아 치과대학교수와 구강보건담당관이 대학시설과 체제를 탐관하기위해 내방하였다.

● 졸업생앨범 설치



2010년 10월 11일 17회 동문이 주축되어 앨범의 졸업생들 모습을 영구 전시형태를 구축하였다. 이번에 소장하시던 앨범제공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MOU 체결



2010년 11월 23일, 24일 이틀 간 일본 오사카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사카 치과대학교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자매 대학으로서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인 박준봉교수를 비롯하여, 박영국교수(부원장), 최경규교수(대외협력실장) 및 박용덕교수(치의학교육실장)가 사절단으로 참석했다.

첫날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KHUSD), 오사카치과대학교(ODU), 상하이 교통대학(SJTU) 등 3개국 각 치과대학장을 비롯한 사절단의 참석과 정기적인 3개국 학술교류를 위한 MOU체결을 위해 각 대학 간 의견조율이 선행되었고, 환영행사가 이어졌다.

이튿날 행사는 전 날에 제시된 MOU 체결을 각 대학의 학장간 서명식을 갖고 바로 3개국 학술발표로 이어졌으며 이로서 향후 3개 대학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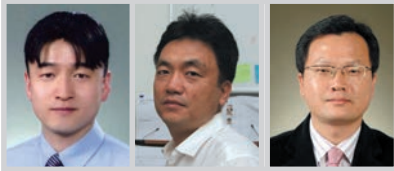
● 국외봉사시행, 동티모르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의 확대를 위해 1월 18일에서 24일까지 동티모르에서 6박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쳤다.



● **신임교수 채용 : 박기호 조교수, 방재범 객원교수, 김은철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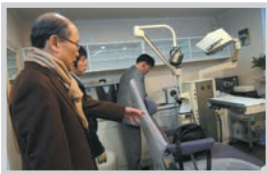
박기호교수는 2000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3월 1일자로 치과교정학분야에 근무하게 되었다. 방재범교수는 1998년 영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동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은철 교수는 1988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악안면조직 재생학교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우이형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선출**



우이형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이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치과병원협회는 2011년 2월 11일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과 관련하여 우이형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을 신임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우이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1년 3월 1일부터 향후 2년간이다.

● **이수인(1회)동문 역사자료(치과장비)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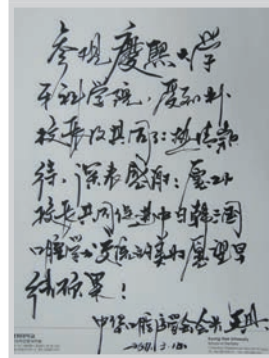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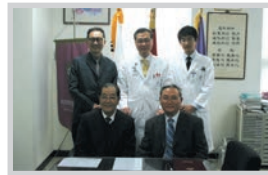
이수인동문(1회)께서 선대부터 사용하시던 국내 초유의 독일 Zimens 사의 Unit Chair를 비롯한 치의학사연구에 소중한 자료들을 2011년 2월 17일 대학에 영구기증하셨다. 대학에서는 수년전 임중성(3회) 동문께서 증정하신 자료와 함께 치학관내 Old Dental Clinic을 설치할 계획이다.

● **2011년 1학기 전체교수 워크샵 개최**



2011년 1학기 치전원 교수 워크샵을 강북힐리데이인 서울에서 치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대비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다.

● **중국치과의사협회장 내방**



왕 싱 중국치과의사협회 회장(베이징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이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내한, 국내 치과계의 교육 및 병원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구강외과학을 전공한 왕 싱 회장은 국내의료기관들의 최첨단 수술시설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소아치과클리닉과 장애인 치과클리닉, 임플란트클리닉 등 특수 진료과 관련 자료도 관찰하였다. 왕 싱 회장은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엄청난 발전한 한국 치과계의 교육시설과 진료시설, 치과산업 등이 모두 인상적이었다며 향후 한국과의 교류활성화 추진으로 양국 치과계가 동시에 발전하자고 말했다.

● **신제원 교수 치평원 원장 취임**



신제원 교수가 3월 31일 제2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 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신 원장은 취임사에서 "치의학교육 평가기구로서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치평원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임기동안 치의학교육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등 치평원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원장은 앞으로 치평원 운영과 관련해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의 효율적 수행 ▲치과의사의 교육 및 평가의 표준화 ▲치과의사면허시험 제도개선 연구 수행 ▲치의학교육의 국제표준화 및 상호인정 노력 ▲유관단체들과의 유대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1년 1학기 합동외래교수회의**



학교발전을 위한 합동외래교수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석원 교수 고향의학상 수상



6월 10일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개원 5주년 기념식상에서 이석원 교수가 최우수논문으로 고향의학상 금상을 수상하였다.

원 비율 (2.5%), 교환학생비율(Inbound, Outbound, 각 2.5%)이다. 조선일보 평가팀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인문학과 교양 강의만을 전문으로 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는 등 학교 전체가 인문학 진흥을 위해 뛰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주관 사회봉사활동 실시



치전원 학생들의 사회봉사 개념의 교육을 위하여 7월 20일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에서 60세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 분과학회장 활약

치의학회 산하 분과학회장들의 회의가 8월 26일 온양에서 개최되었는 바 본교관계자 및 동문들의 학회 활동이 활발하였다. 동문 참석자로는 대한노년치의학회장 박준봉 치전원장을 비롯하여 대한장애인치과학회장 나성식(3회) 동문, 대한치과마취과학회장 이진주(3회)동문, 대한치과이식학회장 박일해(6회)동문, 대한악안면성형학회장 류동목 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장 박영국교수, 대한턱관절교합학회장 이성복교수, 대한안면통증구강 내과학회장 윤창륙(11회)교수등이 있다.

● 아시아대학 대학평가에서 경희대 20계단·국내 3계단 상승, 국내 7위

조선일보와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42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최초로 50위 내로 진입했으며 이는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이번 순위는 2009년에 비해 20계단 상승한 순위이며 국내 순위 역시 3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대학평가의 평가지표는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영역 등 4개 영역의 총 9개 세부지표로 나뉜다. 세부지표는 학계평가(30%), 졸업생평판도 (10%), 교원 당 학생 수 (20%), 교원 당 논문 수 (15%), 논문 당 인용 수 (15%), 외국인 교

●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9. 1 기준)

기초치의학 (16)		
구강해부조직학	신제원	주성숙
악안면생체공학	이상천	황유식 허정선
악안면조직재생학	조재오	김형찬 김은철
구강생화학	김정희	
치과약리 및 독성학	김성진	이현우
예방/사회치과학	박용덕	
악안면생체공학	이진용	권일근
치과재료학	임호남	
치의학교육학	방재범	
임상치의학 (38)		
치과교정학	박영국	김성훈 김수정 강윤구 박기호
소아치과학	최영철	김광철 박재홍 최성철
치주과학	권영혁	박준봉 허 익 정종혁
	강경리	신승일
안면통증·구강내과학	홍정표	전양현
치과보존학	최기운	최경규 박상혁 김선영
구강악안면방사선학	황익환	최용석 김규태
구강외악안면외과학	김여갑	류동목 이백수 지유진
	권용대	이덕원 최병준
치과보철학	최대균	우이형 이성복 권공록 김형섭
	이석원	배아란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 3월 16-19일 San Diego Convention Center 에서 열린 제 89 차 IADR general session 에 조재오 교수와 강상욱 조교가 참석하여 poster 발표를 하였고, 강상욱 조교는 Hatton Award competition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다.
- 2011년 4월1일 김은철 교수가 신입교원으로 임용되었다.
- 6월 3일 4일 부산 Seacloud Hotel에서 열린 한국구강악안면 병리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황유식 교수 : ❶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수주 : 1억 5천만원 - '치 아유두조직 유래 신경줄기세포의 특정신경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최적의 배양조건을 스크리닝' ❷ KIST : 1억원 - '치아유두조직 유래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광자극에 반응하는 광자극 유도 활성 신경세포주의 개발' ❸ 중소기업청 : 4천만원 - '지방 줄기세포의 삼차원적 배양을 위한 바이오리액터 시스템의 개발' 3개의 연구과제에서 총 2억 9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허정선 교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수주 : 9천만원 - '배아줄기 세포의 배아줄기세포의 골세포 분화 조절인자의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 이상천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 · ITI로부터 2년간 200,0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2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 교수는 'BMP-2/IGF-1(골조직 형성 촉진 단백질)의 정밀방출형 나노 입자가 탑재된 생체활성 임플란트 표면 개발' 연구주제로 기존 임플란트 대비 골유도와 골유착 기능이 탁월한 임플란트 및 고기능성 골재생용 소재에 응용될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권일근 교수가 2010년 말 개최된 한국생체재료학회(Korean Society for Biomaterials) 총회에서 올해의 학술상(히스토스텝 우수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예방/사회 치과학 교실

- 박용덕 교수는 국제 SCI 5편, SCIE 1편 및 학진등재지 6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 예방/사회치과학 교실에서는 2011년 2월부터 LG 생활연구소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4천만원의 연구비 및 2011년 3월부터 태평양기술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6천8백만원의 연구비를 신규과제로 수주하였다.
- 박용덕 교수는 6월 15-24일 헝가리 국제분석학회에서 논문발표를 하였으며, 치과전문신문인 세미나리뷰로부터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공로패를 수여 받았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교실 의국원 김동기 박사(경희 4회)가 5월 21일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에 재선되었다.

치과보존학교실

- 2010년 9월 7일 개강식 및 김선영 교수 임용 축하 모임을 개최 하였다.
- 2010년 11월 12~13일 추계 보존학회에서 R2 최우영 정우진 선생이 구연 발표하였다.
- 2011년 1월 15일 역삼역 Club&Gallery 에서 경희대 보존학 교실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 2011년 3월 2일 이진규 선생이 전임의로 임용되었다.
- 2011년 3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근관치료학회에 참석하였다.
- 2011년 4월 16~17일 세계 접착 치의학회에서 R1 장우정 선생 이 구연 발표하였다.
- 2011년 5월 20~1일 춘계 보존 학회에서 R3 박지혜 선생이 구연 발표하였다.

치과보철학교실

- 2010년 10월 29일 Keiichi Ishigami 교수 강연 및 환영만찬을 개최하였다.
- 2010년 11월 6일~7일 최대균 교수, 권공록 교수가 총의치 연수 회를 개최하였다.
- 2010년 11월 20일 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배아란 교수가 레진시멘트의 사용접착vs 부착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1년 2월 20일 고려대임상치의학연구소 Symposium에서 권공록 교수가 강연하였다. [Mini Diameter Implant]
- 2011년 3월 2일 노관태, 박수정 선생이 전임의로 임용되었다.
- 2011년 3월 13일 대한 컴퓨터 수복 재건 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김형섭 교수, 배아란 교수가 강연하였다.
- 3월 12~13일 이성복 교수가 대한치과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연하였다.
- 2011년 4월 16일~17일 대한치과보철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철과 3년차 최우진 선생이 구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4월 16일 이석원 교수가 2011년도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회에서 강연하였다.
- 4월 29~30일 이성복 교수가 2011년 제3회 국제태권도학술대회에서 강연하였다.
- 5월 20~22일 이성복 교수 120주년 히로시마 일본 보철치과학회에서 강연하였다.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

- 2011년 1월 7일 황의환 교수와 의국원 동창간에 신년하례식이 개최되었다.
- 2011년 1월 14일 이상래 교수와 의국원 동창간에 신년하례식이 개최되었다.
- 2011년 2월 5일 최용석 교수가 연구년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 2011년 2월 16일 박철우 선생, 유재정 선생의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 2011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개최된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1년 5월 24일~29일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 18회 국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 참석하여 구연과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소아치과학교실

- 2011년 1월 15일 교수와 의국원 동창들이 모인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 2011년 3월 8일 1학기 대학원 개강식이 단풍나무집에서 있었다.
- 2011년 3월 14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신입 1년차(임지은, 김미선, 이영은, 이윤정 선생)의 입국식이 있었다.
- 2011년 3월 31일~4월 2일 터키에서 열린 유럽소아치과학회에 박재홍 교수, 박소연, 유은규, 김선하 선생이 참석하였다.
- 2011년 4월 9일 강동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춘계장애인지과학회를 개최하였다. 오미희 선생이 우수발표상을 수상하였다.
- 2011년 4월 30~5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소아치과 춘계학회에 참석하였다. 박소연 선생이 우수발표상을 수상하였다.
- 2011년 6월 15~18일 그리스에서 개최된 세계소아치과학회에 최성철 교수, 이수연, 정용석, 임지은 선생이 참석하였다.

치주과학교실

- 2010년 9월 8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3차 치주과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2010년 11월 27~28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치주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1년 1월 3일 교수와 의국원 동창들이 모인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 2011년 3월 1일 정종혁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1년 3월 22일 신입 1년차 입국식 (김동희, 남은희, 문복희, 박병규 선생)이 있었다.
- 2011년 5월 20~21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치과교정학교실

- 2010년 10월 3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제 2회 Kyung Hee-Speedy Surgical Orthodontics Course가 개최되었다.
- 2010년 10월 2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New Trend of Lingual Orthodontics란 주제로 제 3회 경교회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2010년 11월 19~20일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치과교정학회 43회 학술대회 참석하였다.
- 2011년 1월 29일 경교회 임상 교정 컨퍼런스 및 신년 교례회가 개최되었다.
- 2011년 2월 16일 전기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강종원, 김지영,

주효진 선생이 박사 학위를 이지원, 장형준 선생이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 2011년 3월 1일 박기호 조교수, 안효원 전임의가 신입교원으로 임용되었으며 강윤구 교수가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1년 3월 19일 오사카 치과대학·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학술교류회가 개최되었다.
- 2011년 5월 미국교정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1년 5월 27일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공의 학술대회에서 3년차 인 노승현, 박정호, 장예진, 원필준 선생이 발표하였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2011년 3월 1일 권용대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1년 3월 12~13일 대한치과아식학회에서 서준호 전임의가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1년 3월 25일 이백수 교수가 EBS명예에 출연하였다.
- 2011년 3월 28일 권용대 교수가 ITI conference에서 강연하였다.
- 2011년 4월 14~16일 International Symposium Osteology에서 권용대 교수가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1년 4월 21~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52차 대한구강악안면외과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1년 4월 29일 강산옥에서 마취과와 친선행사를 개최하였다.
- 2011년 5월 5~7일 ADT에서 오주영 전임의가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1년 5월 15일 이백수 교수가 네오바이오텍 춘계 심포지엄에서 강연하였다.
- 2011년 5월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춘계학술집담회에 참석하였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 2010년 10월 1일 ~ 3일 AACMD에서 강수경 전임의가 구연을 이고운 전공의가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0년 11월 15일 치과수면과 관련하여 Dr. Glenn T. Clark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2010년 12월 17일 2010학년도 QI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2011년 1월 27일 홍정표 교수, 김혜영 위생사가 치과병원 친절교직원을 수상하였다.
- 2011년 2월 16일 유상훈 박사, 배성제 석사의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 2011년 3월 19일 대한안면통증 구강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유상훈 박사와 배성제 석사가 발표하였다.
- 2011년 4월 9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2011년 1차 전공의 교육이 개최되었다.
- 2011년 4월 25일~28일 전양현 교수와 강수경 전임의가 미국 매릴랜드 치대를 방문하였다.
- 2011년 4월 28일~4월 30일 강수경 전임의가 AAOP에 참석하여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2010

2010년 4월 12일
 2010년 4월16일~18일
 2010년 4월 25일
 2010년 5월15일
 2010년 6월 4일

 2010년 6월 26일~27일
 2010년 7월 12일
 2010년 9월 3~4일

 2010년 9월 11일
 2010년 11월 1일
 2010년 11월 12일
 2010년 11월 25일

총문창회 상임이사회(동문회관)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경희치대 동창회 홍보 부스 운영(코엑스 대서양홀)
 전국치과의사 테니스대회 참가 : 경희치대동호회 은배부 준우승
 협력병원협의회(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사회(세종호텔) - (사)경희치대 동문장학회와 교보생명 MOU체결 2010년 6월 20일 10개 치대
 동창회 GOLF 대회 (경북치대동창회주최) 경북 상주 오렌지 CC
 SINDEX전시장 동창회 홍보부스 운영(코엑스 대서양홀)
 (사)경희대학교치과대학동문장학회 설립인가
 제 13회 총장배 치과대학 동창회 골프대회 제주 엘리시안 CC
 성 적 - 단체전(우승 : 16기(221)타, 준우승 : 14기(239)타, 3위 : 27기(248)타)
 개인전(우승 : 고봉진(20회) 70.6타, 준우승 : 최중우(14회) 70.8타)
 메달리스트 : 김형남(16회) 72타, 준메달리스트 : 이성민(16회) 73타
 롱기스트 : 이교용(12기) 275 야드, 니어리스트 : 조남성(14기) 2.2미터
 변강쇠상(최다OB상) : 주성진(36회) 오비 13개,
 비아그라상(최다OK상) : 김봉현(16회), 김일중(21회) 18개
 협력병원협의회 총회(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동창회 감사, 동문장학회 이사회, 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부산지부 동문회
 제 39회 졸업생 동창회 입학식

2011

2010년 1월 14일
 2011년 2월 17일
 2011년 2월 19일
 2011년 2월 22일
 2011년 3월

 2011년 3월 30일
 2011년 4월 23일

 2011년 5월 2일

 2011년 5월 29일
 2011년 6월 1일

경희대학교 총 동창회 신년 교례회
 경희여자치과의사회 신입회원 환영회(롯데호텔)
 부산지부 동문회 총회
 치전원 신입생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다수의 동문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도지부 회장에 당선됨
 고천석(6회 : 부산시치과의사회 회장) 정철민(7회 :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호(7회 : 인천시치과의사회 회장) 곽약훈(9회 :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김종효(10회 : 제주도치과의사회 회장)
 발전기금운영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김세영 동창회장이 제28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 당선
 김종환동문(8회) 감사로 선출됨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으로 다수의 동문이 임명됨
 정책연구소장 노홍섭(8회)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 기태석(8회)
 보험담당 상근부회장 마경화(11회)
 지부담당부회장 정철민(7회)
 총무이사 : 안민호(12회) 홍보이사 : 이민정(18회) 공보이사 : 김홍석(21회) 정책이사 : 김철신(25회)
 협회장배 전국치과의사 테니스대회 참가
 (금배2팀, 은배1팀 참가), 경희치대동호회 금배부 우승
 임시총회 개최 : 나금균(10회)동문이 동창회장으로 선출됨
 2011학년도 상반기 (사)경희치대동문장학회 장학생 유완민(2학년)에게 장학금 200만원 지급



평생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

기수	명수	회 원 명
1	19	구국본 권영력 김광휘 김여갑 박갑용 박상현 박춘배 이수인 이정호 이재동 이충복 이필제 장지우 전병찬 정규림 정운하 정유택 정충모 조재호
2	31	강기현 구자룡 권수갑 김상원 김정학 김주환 김지태 김진호 김해철 남상욱 박두중 박봉규 방용숙 백상규 송영유 신응범 유영호 윤두근 윤인택 이건주 이승근 이창규 장수일 정기림 정재규 제한봉 지준순 최규진 최대균 한무현 홍진표
3	14	김인곤 김중철 김판식 나성식 박상기 박철성 서영문 신영림 이규용 임홍재 장상수 정봉준 조 헌 조호구
4	20	강해성 광춘실 김광열 김동기 김성일 김춘진 김택청 노경완 송영일 이공우 이광섭 이동규 이 영 이정훈 전동문 정영표 정중희 이광섭 이동규 이 영 이정훈 전동문 정영표 정중희 최달현 최승태 최원중
5	21	구본용 김남홍 김병곤 김용구 김태진 문운식 박선재 박준봉 박 현 유윤재 윤숙우 이경호 이승경 이용호 이정만 장지현 조성열 이정만 장지현 조성열 주익남 최선국 최영규 최준우
6	30	강장건 김문기 김성욱 김영일 김태규 문항진 박성규 박일해 박재홍 박중면 박창양 박태용 손선기 신완용 오대환 오영주 유지훈 이영천 이원화 이창훈 이태수 장건택 전종익 정동문 정해영 최영철A 최영철B 최준권 한만형 황용구
7	35	구광모 구재우 김만용 김성원 김안철 김명민 김인수 김중하 김중종 김해근 김해란 노희정 문철성 박용순 방영동 배영수 성영주 신일철 우이형 유인영 이건중 이공훈 이동환 이상호 이해승 이해영 정용복 정지향 정철민 조성일 조성천 조진호 조성천 조진호 최명애 최승규 한기림
8	47	김경선 김광철 김낙현 김성기 김영택 김원경 김재철 노홍섭 라재광 류동목 민원기 박동진 박병걸 박영수 백진기 부용설 송용선 송재만 신원대 신재원 양영환 윤민익 이근택 이두희 이봉희 이선기 이성철 이영식 이용래 이재광 이정화 이진용 이창진 장정태 전향숙 진운식 차덕선 차애경 최기운 최정원 최중실 최호순 하동규 한봉석 홍성태 홍종표 황백연
9	41	기택석 김귀원 김두영 김봉기 김성수 김영호 김응권 김학찬 김형찬 남승희 박도양 박영국 신동화 오규명 오성산 오인섭 오창근 윤동호 이강욱 이건욱 이규찬 이근혁 이상환 이영규 이인환 이재천 이한주 임상욱 임호남 전병수 전시진 전진학 정대현 정성화 정 훈 조완용 진용원 최법식 한계선 한휘철 허귀남
10	45	고의용 공선식 김성철 김세영 김수철 김영덕 김영호 김인화 김중현 김중호 김충길 김철현 나금균 박금출 박우성 박은기 박정용 박진선 박창훈 박철재 손희익 신재창 심원섭 양재홍 우현수 유세영 이대승 이석재 이수영 이완규 이의태 이태호 장석현 장영명 정동진 정성화 정의산 조규석 조영주 최상중 최용진 최이준 하정상 홍성우 홍준표
11	56	강경자 권기열 김정환 김기문 김 만 김명환 김보라 김선욱 김성규 김승일 김영기 김영희 김임남 김재승 김창준 김형락 김훈희 나영민 류 훈 마경화 민호기 박기주 박민양 박성근 박성환 박순건 박연홍 박주연 백영환 서성원 성낙도 신동찬 신중용 신한식 안동환 유충현 윤승환 윤여진 이건영 이경범 이시원 이영석 이정구 이정희 이종태 이창만 이창환 이호길 장 훈 정일영 조병천 조중환 최성재 최원재 최정선 황재상
12	37	강기호 공화수 권규원 김규식 김동호 김상석 김욱정 김익석 김정훈 김효중 박영철 박원균 박재봉 박종규 박희찬 배현욱 손순익 신한주 안민호 유석규 유영선 이교용 이상복 이현식 임호선 장영수 전교철 전석열 전영수 정용식 조승용 최동식 최동현 최화석 한문식 한철웅 황의환
13	38	고철수 김경락 김기태 김미애 김상일 김영수 김유택 김창목 김현규 김형조 김홍욱 모덕진 문영환 문정기 박선희 박은용 박태환 백문수 서찬호 신현미 안병남 안정모 양희상 오세용 유재홍 이민기 이백수 이연주 이원섭 이인석 이창재 장정도 정강식 조종만 최병철 최영림 최호영 한기협
14	39	강정백 구현용 김목세 김미경 김선호 김옥순 김태인 남재형 노용익 박태진 박호정 배미애 송영환 안대원 윤영남 이기영 이문준 이정렬 이택우 임태수 전윤옥 전창환 정성민 정성호 조남성 조승제 조인교 조준영 천무철 최석재 최우대 최중우 최진웅 최호근 한광렬 한 훈 홍영란 홍영안
15	45	권공록 김경진 김려수 김명환 김석훈 김옥진 김 운 김윤홍 김중호 김형진 김홍모 모규엽 박능석 박영주 박인호 박홍수 박희경 선선식 손신영 손일수 송창준 신혜연 염상국 오병호 이광희 이규원 이상열 이수미 이연희 이우석 이재홍 이종민 이채숙 전영신 전종혁 정남희 정병선 정순준 정연진 정 진 조익주 조재민 하치양 한혜숙 허 익
16	31	강예라 권순용 김중선 김경준 김보혜 김봉현 김상균 김원진 김홍광 김희중 박대진 박준호 배재만 성락진 송승훈 신경미 심진섭 안광남 안기동 유주현 윤용섭 이남호 이승택 임유택 장 단 전찬덕 정해산 조선경 지찬동 최대영 황치환
17	23	강상원 강현숙 김보균 김수강 김철순 서남영 신민호 유성열 윤원용 이미경 이영준 이화연 이희정 정극모 정형오 정영진 조윤석 주상은 채영원 최권석 최승모 최영범 홍해룡
18	23	고봉화 김방수 김영환 김영호 김진오 류경희 박상규 박종화 박현상 배한익 손세일 오정진 오현주 윤동주 이상훈 전양현 정 학 정 학 정형근 지정현 차정훈 최형수 황문재 황정민
19	25	곽성연 권호진 김 덕 김선규 김성환 김소정 김준희 김태진 김훈태 방민기 성낙근 오정환 유선규 유왕열 윤종상 이광배 이병엽 이상무 이상민 이천복 이해근 장일우 정동희 정호선 최동원
20	13	강승훈 김상무 김소현 김원경 문은영 박정일 안성준 양성현 양승환 원미영 주성숙 최정규 한성규
21	17	김일중 김현아 김홍석 노상호 민승기 신의중 심학수 안승태 오봉현 이종덕 장현주 정운봉 천강정 천 훈 최창균 탁홍수 한창수
22	7	고준석 김미경 박재홍 안형욱 이상복 이준열 이흥기
23	9	공희경 김선희 박성준 박창진 이승현 임인학 진상배 허정욱 홍선희
24	8	권태훈 김권식 김상석 김영선 박한수 신현택 윤성오 장성진
25	8	김성률 양영중 유대중 이명희 이 욱 이은준 최재영 한지영
26	4	김기범 김형석 서혜연 장우혁
28	3	문경환 이종용 전세영
29	1	장준희
31	1	서승태
합 계		691

평생회비 : 30만원 / 연 회 비 : 3만원

하나은행 : 757-810019-85205(재무이사 : 조선경) ※송금 시 기수와 이름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Leadership Training



2010년 선출된 42대 학생회 (YES WE CAN, 회장 김호성 외 12명), 41대 학생회 (무한 치전, 회장 이원준 외 10명)는 박준봉 대학원장을 비롯한 여러 보직교수 및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에 있는 꽃대울 펜션으로 2011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Leadership training을 다녀왔다.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전, 현직 학생회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양평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김호진 동문(16기)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11학년도 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원



2011년 1월 14일에 열린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은 4학년들의 전원합격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가졌다. 가장 좋은 자리인 입구에서 4학년들을 한 명, 한 명 응원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준비해간 작은 선물들도 전달하였다.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방문



2011학년도 신입생들은 2011년 1월 19일 재학생들과 함께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했다. 류동목 치과병원장 등 여러 교수님들은 신입생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방문이 끝난 후 밤늦게까지 이어진 뒤풀이 모임에 참석한 여러 교수들의 조언과 격려의 말로써, 신입생들은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동문이 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다.

신입생-재학생 대면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져오던 재학생과 신입생의 공식적인 첫 대면식을 2011년 2월 10일 학교 앞에서 가졌다. 각 동아리를 대표해 참석한 재학생들은, 신입생들의 학교생활과 동아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많은 조언을 해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1학년도 신입생 80명은 2011년 2월 22일부터 23일동안 박준봉 대학원장, 보직교수 및 재학생들과 함께 강원도 춘천에 있는 라데나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여러 동아리들의 멋진 공연과 신입생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기자랑, 경희대

만의 전통 방돌이 등 다양한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2011학년도 신입생들은 모교가 된 경희대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였다.

동아리 소개의 날



2011년 3월 17일에는 신입생 OT때 동아리 소개에 이어, 다시 한 번 각 동아리의 소개의 날을 가졌다. 병원에 계신 동문 선배들을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이 모두 모여 열정적인 소개를 하였으며, 소개가 끝나고 서로의 동아리로 신입생을 데려오려는 홍보전도 가졌다. 신입생들도 재학생 선배들 및 선생님들의 열정에 놀라워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러 동아리들의 서로 다른 다양한 분위기를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

2011 전국치과대학 연합 축제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이번 전국 치과대학 연합 축제(구, 육구제)는 2011년 5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부산 양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경희대 치전원은 탁구 복식 우승, 명랑 운동회 우승, 야구 (Dental-Ace) 준우승, 볼링 준우승, FIFA(e-sport) 준우승, 카빙 3위등 여러 종목에서 상위권을 휩쓰는 등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43기 여학생들로 구성된 Dental Diva는 전국의 치과대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단연 주목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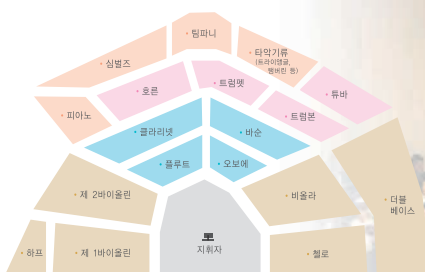
열대야로 힘든 한여름 밤, 아름다운 고전음악을 들으면서 더위를 식히는 “음악피서”는 어떨까. 귀로 듣는 대중가요와 달리 고전음악은 머리와 마음으로 듣는 음악이라고들 한다. 처음 접해서 제대로 듣기 시작할 때까지 2~3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지만은 않은 고전음악이지만, 혹자는 “바흐의 음악을 한번 듣는 것이 성경을 열 번 읽는 것 보다 더 강화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요즘은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클래식 음악 관계자들의 노력과 클래식 애호가들의 증가로,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클래식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다양한 악기의 조합에 따라 클래식 음악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나, 이번에는 오케스트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치주과학교실 조교수 강경리

오케스트라란?

보통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말은 관현악 또는 관현악단을 가리키며, 후자는 더 세분하면, 금관악기를 주체로 하고 여기에 타악기가 더해지기도 하는 브라스 오케스트라(브라스 밴드), 10여 명에서 25명 정도의 주자로 이뤄지는 소편성의 체임버 오케스트라(실내 관현악단),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편성된 심포니 오케스트라(교향악단), 재즈 오케스트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룹별로 묶여진 많은 수의 기악 연주자들의 집합체이지만, 여러 악기들이 아무렇게나 모여 연주를 한다고 모두 다 오케스트라인 것은 아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의 네 가지 악기군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제 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5부로 구성되는 현악기군은 오케스트라의 바탕이 되며,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현악기중 가장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높은 음역을 담당하므로 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바이올린의 오른쪽에는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운 비올라와 첼로가 위치한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약간 큰 크기로, 조금 더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현악기군의 5부 구성에서 가장 가운데 소리를 담당한다. 바이올린과 비슷한 모양,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에 가려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700년대 말부터 작곡가들에 의해 비올라의 독자적이고 감미로운 음색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깊고 그윽한 소리를 내는 첼로는 바이올린처럼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편안함과 중후한 맛을 지니며, 저음영역을 담당하지만 의외로 높은 음도 연주할 수 있어 현악기중 음역이 가장 넓고 표현이 풍부한 악기이다. 그리고 첼로 뒤에 현악기중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더블베이스가 위치한다.



목관악기군에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이 속하며, 그 재질에 따라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뉜다. 새소리 같은 플루트,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의 클라리넷 등의 목관악기들은 금관악기에 비해 소리가 더 부드럽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며, 오케스트라 연주 전체에 상쾌하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더해준다. 모차르트가 특히 좋아했다는 클라리넷은 감미롭고 표현이 풍부하며, 다른 목관악기의 선율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도 하고, 처음 연주로 음흉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금관악기는 강하고 화려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소리가 워낙 크고 시끄럽다보니 목관악기보다 더 뒤쪽에 위치한다. 기본적으로 나팔꽃 모양의 힘찬소리를 내는 호른, 금관악기 중 가장 높고 당당한 소리를 내는 트럼펫, 주로 화음을 연주하여 오케스트라 전체에 힘을 더해주는 트럼본, 크고 무거운 몸집만큼이나 낮은 음을 내는 튜바를 기본으로 구성된다. 타악기군에는 팀파니, 벨,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심벌즈, 실로폰 등이 속한다.

DO ? & DO !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도 최근 오케스트라 동아리, DO (Dental Orchestra of KHUSD)가 결성되었다. DO는 고전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경희시대 학생들의 모임으로, 음악을 통해 구성원간의 연대를 돈독히 하며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치과의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황유식 교수님(악안면 생체공학 교실)의 지도하에, 바이올린은 3학년 김미경, 이윤주, 2학년 박용순, 1학년 조연주 학생이, 첼로는 2학년 서지영, 1학년 노현하, 양선인 학생이, 비올라는 3학년 김홍, 2학년 류경안 학생이, 클라리넷은 1학년 고광옥 학생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각 연주자의 개인적 연주 기법 보다는 전체의 동일한 연주기법이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단체, 협동의 의미가 추가되므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청중에게는 물론, 연주자 개개인에게도 솔로 독주와는 다른 감동을 줄 것이다. 아직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DO이지만, 언젠가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이루어, 선, 후배 동문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멋진 정기공연을 펼칠 그 날을 함께 기대해 본다.

Orchestra



무지개의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Rainbow Nation “South Africa”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 부교수 최 용 석

2010년 3월에서 올해 2월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UWC(University of Western Cape)에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가들 사이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으로 5위 안에 든다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케이프타운이 있는 Western Cape주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며,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교육시키는 남아공 최대의 치과대학이다. 연수를 가기 전 주변의 지인들은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과 반응을 보였다. 혹자는 그 해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으니 이를 보기 위해 가는 게 아닌지 궁금해 했고, 일부는 불안한 치안에 대한 염려 어린 걱정을 해주었으며, 또한 그 곳에 수행할 연구의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우선 전인류의 대축제이며 다양한 이벤트와 역사를 만들어 내는 축제의 장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축복임이 분명하나, 내게 축구는 국가대항전이 아닌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이니 이를 위해 갔다는 오해는 사양하고 싶다. 불안정한 치안이라는 부분이 커다란 걱정거리였음은 분명했지만 아프리카를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흥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걱정보다 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국제학회장에서 남아공의 교수들이 보고한 증례들과 악골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방사선학을 전공하는 나에게는 직접보고

확인할 수 있는 연구기회를 꼭 한번은 가져봐야겠다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UWC의 Paker교수의 초청과 배려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의 자료실에 있는 환자 정보를 검색하고 영상자료를 정리,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자료실에 있는 방대한 악안면 영역의 질환 별 자료들의 영상특징을 살펴보면 질환의 성장과 진행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는 시간은 구강악안면방사선학이 전공인 내게 더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 이 중 치과의사에게 익숙한 질환인 거대한 범람모세포종의 한증례를 소개한다(사진1). 특히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총상 및 좌상환자의 영상들, 전신질환과 관련된 두개안면영역의 골변형 등은 강한 충격과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여러 질환들로부터 고통받았던 환자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갖게 하였고, 임상의 및 연구자로서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1) 범람모세포종 증례



사진 2) Table Mountain



사진 4) 초베 국립공원 내 코끼리와 빅토리아 폭포



사진 5) 그리스전 응원과 승리후 감격

내가 살던 케이프타운은 명실공히 아프리카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아프리카이면서 유럽풍의 생활공간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을 유혹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활동적 관광상품은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케이프타운의 중심에 있는 Table Mountain은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 산의 정상에 마치 깔로 잘린 것처럼 평탄화 되었는데 특히 건너편 섬 로빈아일랜드 해안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너무나 아름답다(사진2). 또한 케이프타운 근처에 많은 관광명소가 있는데 cape point(사진3)는 길에 볼 수 있는 Champman's Peak Drive Road를 따라 펼쳐지는 멋진 해안절경과, Boulders 해변을 따라 서식하는 아프리카 펭귄, 그리고 희망봉이라 불리는 Cape of Good Hope 및 케이프타운 주변의 수많은 와인농장 등은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기억을 주리라 확신한다. 그 외에도 남아공의 곳곳에 산재된 국립공원과 주변나라인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감동은 경험을 누구나 여행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형언할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한다. 여기 사파리 중에 찍은 아프리카 코끼리 사진과 방문 시 수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 위용을 간직한 빅토리아 폭포의 사진을 첨부한다(사진4).

또한 남아공 월드컵기간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장이었으며 그 중앙에 우리의 선수들과 국민들이 있었음이 현지에 있는 내게 큰 자랑이었다. 특히 포트엘리자베스에서 열린 그리스전은 그나마 거리가 약 800Km로 케이프타운에서 가까워서 직접 가서 관람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대승으로 마무리 한 경기라 큰 보람이었다. 이때 한국의 지인들이 날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대형태극기가 올라가는 그 밑에서 한 몫하고 있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경기 후 한국의 축구위원단장인 김흥국씨가 한국라디오 방송국과 생방송으로 통화하는 도중에 옆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기념으로 갖을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다.

그 외 남아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니 생략하고,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함께 공존하며 무지개처럼 어울려 사는 나라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1487년 처음 발견된 이래 1652년 네델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인도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유럽계 백인들이 정착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에서 유입된 노예들, 철저히 소외되고 탄압받았던 원주민들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나라이다. 더욱이 1806년에 영국이 케이프타운에 식민지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원주민인 코사족, 줄루족과의 처절한 정벌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 후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다이아몬드와 금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발생한 영국과 기존의 네델란드정착민간의 1,2차 보어전쟁에서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받았으며 반인류적인 범죄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이후에 설립된 네델란드계를 기반으로 하는 백인정권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근대 사회에서 행하여졌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였다. 백인, 유색인, 흑인이라는 세개의 인종으로 구별하고 유색인종의 참정권, 기본인권 등을 제약하는 정책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시행하였다. 이는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흑인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최초 흑인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1994년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젊은시절 투쟁적인 인권운동을 하여 구속되어 27년간이나 케이프타운의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위치한 로빈아일랜드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인간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정체성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유에 대한 열정과 인류애에 대한 신념으로 무려 400년에 걸친 인종분규를 종식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류가 피부색을 비롯한 그 무엇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서로 어울려 평화를 구현하는 세상, 진정한 무지개의 나라를 향하는 남아공이 되길 바라며 반드시 이루어라 믿는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사는 우리 한민족, 남북간의 괴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단일민족인 우리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세대간 및 계층간의 갈등, 좌우이념간의 대립,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타민족들에 대한 차별과 배타심 등을 우리사회에서도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남아공의 역사가 주는 교훈과 넬슨 만델라가 이루고자 하는 조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상기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이 한국에 돌아와 살아가는 나의 가슴 깊은 곳을 아리게 한다.

사진 3) 희망봉(Cape of Good Hope)가 있는 Cape Point

구강내과학교실 / 만성구강안면통증센터



구강내과학교실 주임교수 : 홍정표
 치과병원 구강내과 과장 : 전양현
 만성구강안면통증센터장 : 전양현
 스텝 : 조교수 어규식(해외연수)
 전임의 강수경
 전공의 : R3 이고운, R2 장주연, R1 김민재
 진료보조요원 : 치과위생사 김혜영, 권순화
 간호조무사 진복자

- 197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구, 대한구강내과학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진료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턱관절장애와 구강안면통증 그리고 구강연조직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 및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이며 학문적으로 시작되었다.
- 본교에서도 경희의료원 치과 예진실을 거쳐서 1992년 경희의료원 치과병원에 구강진단과가 개설되었으며, 당시에는 교수 1명과 조무사 1명 그리고 치과진료의사 2개가 전부였다. 1995년 구강내과로 개명하고 교수 1명, 전공의 3명, 치위생사 1명, 조무사 1명이 근무하면서 비로소 진료와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 차차 구강내과 환자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개원가의 진료 의뢰가 늘어나면서 구강안면통증클리닉과 구취클리닉을 개설하게 되었고, 특히 2000년 5월 2일 경희의료원 동서합진센터에 치과에서는 처음으로 동서구취클리닉을 개설하여 양한방 협진을 였고, 치과계에서는 처음으로 치과스트레스 교실을 운영하면서 환자 교육 및 홍보에 주력 하였다.
- 2000년 8월 1일 치과물리치료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항목으로 정식 신설됨에 따라서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악관절전기자극요법, 그리고 악관절복합자극요법을 포함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환자와 술자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치과병원 1층에 있는 33평의 공간에서 스텝 3명과 치과위생사 2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의 인력에 치과진료의사 8대, 6종류의 치료기기 17대를 좁은 공간에서 운영하면서 진료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CLASSROOM

● 2008년 10월 23일 만성구강안면통증센터에서 진료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치과병원 4층에 개설된 만성구강안면통증센터는 기존 진료실의 2배인 67평의 공간에서 동시에 50명을 진료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이며, 국내 최대 규모이며, 추가 보완된 초음파 치료기,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 전기 자극 치료기, 이온영동치료기, 저수준 레이저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등 총 30대의 치료기기를 동시에 가동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각역치 검사기, 레이저도플러 검사기, 뇌파 검사기, 수면 검사기, 꿀밀도 측정기, 활성산소 검사기 등의 최신 장비도 구비를 하였다.

● 특히, 만성구강안면통증센터의 특성화를 위해서 행동치료요법, 점진적 근육이완법, 심리상담, 향기 요법, 그리고 16가지 성격유형에 의한 음악 처방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비록 진료인력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루어졌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과수면장애와 스트레스성 구강질환 그리고 구취 등의 진료에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바닥을 온돌 시스템으로 만든 교육실에서는 경희의료원 부속병원 정신과와 함께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한 스트레스 교실을 운영하고, 부속병원 재활의학과와 턱 운동 기능장애자, 발음장애자, 호흡장애자 등의 새로운 환자를 개발하여 협진을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상담심리학과와는 공동연구를 할 예정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메릴랜드 치과대학과의 만성구강안면통증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SCI급 국제적인 논문을 이미 수차례 발표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동연구 중이다.

● 2009년 12월 1일부터 구강내과 진료실도 4층으로 이전하면서 노인구강연구소를 개설하면서 이제, 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간다는 마음의 자세로 학문연구, 학생교육 그리고 진료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동문 10회)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리더십 필요할 때



당선되신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떠신가요?

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정말 숨 가쁘게 달려 온 것 같습니다. 보건 의료계 단체, 보건복지부, 각 시도 지부 및 치대동창회와의 각종 행사 및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4월 23일 당선된 이후 며칠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협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점검해 보면서 쉬려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여기저기 회원들의 욕구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무엇을 해 달라, 이걸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성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직 장작과 쌀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밥을 차려달라고 하니 몸과 마음이 바쁜 게 사실입니다.

공약에서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대해
올인할 예정이라 하셨는데요, 최근 네트
워크 치과에서 '가입협박 유인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요?

먼저 치과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네트워크 치과에서 한 행동은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원의까지도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행동들은 속히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개원가를 능멸하는 이런 식의 유인물이 다시는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협에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관련 특별위원회를 신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 시도지부서 접수된 내용을 파악해 나갈 것이며, 치협 차원에서도 고소/고발을 하기 위한 정보 등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측에 의료법 개정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1차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며, 동시에 의료에 있어서 복지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오면서 회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곧 민심이었고 우리는 그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각 시도 지부에 있는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귀를 열고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행운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거 때 저를 지지해 주고 당선을 기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어느 조직이던 간에 구성원들이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겐 엄격하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즉 구성원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 간의 화합을 깨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서슴치 않는 회원이나 집단이 있을 때는 아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고 엄격한 리더십과 함께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때는 유연함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로 가장 급한 피라미트 치과 척결에 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로 치과계가 어지럽고 치과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도 끝난지 오래인데,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먼저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말고 비윤리적인 일에는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치과계에 우선 충실해야 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선후배 동료들과의 조화에도 신경을 써 주길 당부합니다.

두번째로는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여러분의 소임을 잘 부탁드립니다. 진료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술을 더욱 넓게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글로벌화 시대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키워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국내외 치의학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여 글로벌 덴티스트를 지향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Social Network'의 중요성을 이해해 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좁은 공간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시고,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갖가지 활동들을 통해 외연을 넓혀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 자신과 더불어 대한민국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창회와 학교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미 저 역시 바로 얼마 전까지 동창회 회장을 지냈었기에 동창회와 모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치대에 바라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로만 키울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치과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동창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이창진

7천만 원 이상

(주)신흥

5천만 원 이상

곽약훈 이재광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3천만 원 이상

김학찬 이정우 장지우 전요한 치과대학대전동문회 (주)비스코덴탈아시아

2천만 원 이상

김용래 박준봉

1천만 원 이상

공희정 권영혁 김광휘 김규남 김성기 김성욱 김승윤 김여갑 김영훈 류동목 문정기 박양제
 박주연 박태용 백두흠 서광원 송요선 신용범 신한식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윤
 이한우 장상건 장지현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영철 한만형 한정희
 경희치과병원 경희치과의원 오우대학
 치과대학 2회동문회 치과대학 3회동문회 치과대학 5회동문회 치과대학 6회동문회 치과대학 9회동문회
 치과대학 12회동문회 치과대학 13회동문회 치과대학 19회동문회 치과대학 22회동문회
 치과대학 수원지역동문회 (주)씨코리아 참조은치과병원

8백만 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인화 박영국 정규림 오스텝임플란트(주)

5백만 원 이상

고광준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용준 김판식 김필수 김항경 김형찬
 민호기 박기범 박내길 박능석 박도양 박두중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헌
 박상혁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순정 박승훈 박영수 박영주 박용덕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재홍 박정용 박철제 박철성 박태용 박 현 박현석 박희경 배영수 백동준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유원 성락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승근배 신동건
 신동구 신 명 신재원 신혜련 안광식 안근국 안병규 안장원 양승춘 어수철 엄인석 오세웅
 오세윤 오정진 오정환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우이형 원미영 유선렬 유인영 유주현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윤옥병 이건영 이건주 이근혁 이명성 이상래 이상철 이상호 이영식
 이완규 이원섭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재흥 이정열 이종인 이종택 이천택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현우 이흥기 이화연 이희정 임기효 임길웅 임상욱 임천택 임호남 장건택
 장영빈 장원종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 훈 전석열 전장환 전종혁 정관희 정대현 정선모
 정용복 정용식 정인교 정재규 정주성 정 철 정희일 제한봉 조동석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익주 조재오 조정현 조준영 조진호 조해성 지용기 자유진 지정호 지순순
 지찬동 차덕선 차에경 채영원 천무철 최경규 최근락 최기운 최대균 최명애 최상돈 최성백
 최승규 최연석 최영범 최원침 최용석 최원재 최유진 최인식 최종우 최중설 최천영 최호근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봉석 한정희 한중수 한창규 한휘철 허귀남 허성윤 허익 현원섭
 홍선희 홍정표 홍진표 황우규 황의환 황재상
 치과대학 16회 동문일동 세영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PEOPLE

3백만 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균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김 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종환	김진오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희	남종현	마경화	민병순	박갑용	박남수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진	박성동	박수배	박영철	박희찬	백성선	백영완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완용	신의종	안민호	안희진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섭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중	유영신	유용균	유충현	유형열	윤덕상
윤인중	이건옥	이광희	이규원	이금호	이동식	이만섭	이백수	이상태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종태	이진표	이청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학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종혁	정창권	정철민	정형주	조남성	조민구	조세중
조인교	조재민	조정근	조태희	조한국	조호구	주성숙	천강정	최병환	최부병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최호영	한승완	한용환	한 훈	허정욱	홍성태	홍영안				
김정수	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주)덴티움	(주)악어미디어	최신치과						

2백만 원 이상

권기열	권호진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 운	김인수	김재승	김정우
김정희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흥모	나금균	류종균	모규엽	문항진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백종은	손일수	신동진	신현택	오인중	유경민	유재홍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훈	이수인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재	이혜승	인영미	임태수
장수일	정충모	조민우	조승제	하정상							
치과대학 1회동문회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오스팀임플란트(주)									

1백만 원 이상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고철수	곽춘길	구국본	구본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종선	김경용	김귀원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영일	김용구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정학	김종호	김중중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홍기	나성식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역	류경희	류 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문은영	정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연진
정윤주	정의산	정준호	정지향	조규석	조영주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병준	최성연	최승모
최승현	최 인	최현용	한기협	한동인	한수희	한혜숙	홍해룡	황동현	황지영		
프랜드치과의원	함께하는 치과										

1백만 원 이하

강대인	강승구	강철규	강혜령	강혜성	고건호	고영훈	고창배	공선식	공준하	곽용훈	권순민
금구석	금미연	김광순	김광식	김규태	김남준	김대기	김동규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배경
김보균	김보라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원	김승일	김승일	김시원	김영기	김영득	김영란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중현	김지현	김창용	김철순	김춘진	김학렬	김현경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니영민	노은희	류경희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재룡	문희현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현	박동원	박수정	박 송	박용호	박재춘	박정애	박창훈	박춘배	반태환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찬호	손미연	송성국	송현우	신강섭	신동렬	신재창	안정원	양경돈	양광모	여병영
오승교	오승환	오은희	오주영	오현주	우승철	유용재	유지연	유지훈	유진석	유히균	윤성수
윤여진	윤용섭	윤원용	윤인탁	윤현주	이대승	이석원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시원	이영희
이윤정	이은권	이은만	이을재	이인석	이정교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채숙	이태희	이현경
이현우	임경석	임종성	임진혁	장영명	장에진	장형준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모마치과	성모치과	송도드림치과의원	연수준치과의원								